

장흥군, '예양공원' 휴식과 문화 복합공간 새단장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으로 조성...내달부터 착공 예정 공원 내 동학농민운동 마지막 격전지 등 사적지 위치

장흥군이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예양공원 새단장에 나섰다. 예양공원은 2020년 전라남도로부터 지역 혁신 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에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3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00억원이다. 장흥읍의 예양공원은 1960년대 조성된 지역민들의 추억의 장소로, 매년 봄 벚꽃이 피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시설이 노후돼 탐방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원 내에는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격전지 석대들 전적 등 사적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기리기 위해 공원 명칭을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으로 정했다. 교육과 체험, 휴식의 복합공간으로 이용하고자 사방진 테마정원 조성하고 토요시장 등 인근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데크로드 등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순한 시설물 개선에서 벗어나 공원의 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체 운영과 지역민이 주도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등 모두가 참여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오병찬 산림휴양과장은 "올해에는 수냉정



리모델링과 진입로를 우선 개선하고 내년에는 사방진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읍 도시재생 청년샵 '가게, 유어사이드' 오픈 50여 종 판매 및 마케팅 플랫폼 운영

지난 19일 강진읍 중앙로 동성리 남도생협-서울상사 사거리에 위치한 강진읍 도시재생 시설 청년샵 '가게, 유어사이드'가 오픈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샵은 강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조성됐으며, 커뮤니티동, 아프리카, 창업동 등 크게 3동으로 구성됐다. '가게, 유어사이드'상점은 창업동에 '강진청년협동조합 펀들'(이사장 장성현)회원 17명이 모여 강진관광기념품 개발, 강진특산물, 청년 창업 제품들을 전시 판매한다.

청년샵에서는 강진읍 특산물과 관광기념품, 그리고 창업한 청년들의 제품 등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강진읍을 대표하는 청자는 물론, 강진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집착한 공예품과 코스메틱 제품, 강진군 관광디자인 상품과 청년 목수가 만드는 목공예품, 강진군 특산물을 활용한 조형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 50여 종을 판매한다.

장성현 청년협동조합펀들 이사장은 "강진의 도시재생 사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동참하고자 지금의 청년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예가, 농업, 천연염색, 요가, 목공예, 예술치유 교육, 문화해설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위길복 건설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년샵을 조성할 때 시설 이용 활성화에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청년협동조합 펀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등 여러 청년 협동조합이 육성되어 활동하는 것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며 "강진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샵 커뮤니티동에는 공유주방, 공유사무실, 교육·회의실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회의 진행이 가능한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시설 사용을 원할 시 건설과 도시재생지원센터(☎430-5760)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해야"

박근혜 진도군의회 의장 제안, 섬 지역 균형 발전 위해 정부차원 특별 대책 필요



전남 시·군의장협의회는 18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 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국토교통부와 각 부처 등에 촉구했다. 전남 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담양군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박근혜 진도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진도군 조도면은 섬이라는 여건상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1년에 90일 가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뚝과 멀치, 속,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도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박근혜 의장(진도군의회)은 "조도와 진도를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전 군민의 오랜 염원이다"며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과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국도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성용기자

강진군, 대구면 시작으로 찾아가는 여성 취미교실

강진군은 지난 14일 대구면을 시작으로 2022년 제1회 찾아가는 여성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회 취미교실은 이달 31일까지 읍·면 2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천연클렌징제품, 주방세제 등 천연제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정, 직장을 벗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 강진 조성에 기여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참여자들은 탄소중립 실천 방법 등을 교육받으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단체관광 등 유치 여행사·학교·기업에 지원금 지급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3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지원대상은 해남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학교·기업이다. 지역 내 유료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여행사의 경우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당일 1만원, 1박 2만원, 2박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사·학교·기업은 해남군 및 해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조건 등을 확인 후 해남 여행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일 30일 이내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골프관광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해남군 전담여행사를 선정하는 등 단체관광객 수요를 확대하여 해남 관광을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팀(☎ 061-535-6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